광주시 일부 간부공무원 낯부끄러운 업무태도

민원인 앞에서 직원에 막말
회식자리서는 성희롱 발언
의회 보고 업무 누락 지시도

광주지역 안보 대책 논의 12일 오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지방통합방위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지역안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일부 간부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업무태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민원인 앞에서 직원에게 막말을 퍼붓고, 회식자리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는가하면 결재서류 양식을 고치라며 하루종일 직원의 업무시간을 빼앗는 간부도 있다. 의회 업무보고 자료누락을 강요하고 일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간부, 공식자리에서 업무 관련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나 망신당한 간부 등 낯부끄러운 행태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를 놓고 일부에선 윤장현 광주시장이 공직사회의 경직성 타파와 함께 창의행정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간부들에게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한 게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불필요한 서류양식에만 집착**=최근 복지건강국내 대표적인 민원 격무부서를 새로 맡게 된 A과장(4급)의 하루는 막말로 시작해 막말로 끝난다는 게 직원들의 설명이다.

A과장은 수시로 내부서류 양식과 문구 등을 놓고 직원들에게 막말성 발언을 퍼붓고, 민원인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 직원은 "업무내용이 아닌 서류양식 등 때문에 매번 모욕을 당하다 보니 결재받는 것 자체가 겁나고, 일할 의욕도 생기질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국의 직원들은 요즘 '점'을 빼느라 업무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 신임 B국장(3급)이 모든 결재서류에서 숫자 다음에는 점(마침표)을 찍는 기존 양식을 바꾸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의회 업무보고서 등 막대한 분량의 서류에서 숫자 다음에 찍힌 마침표를 찾아 없애느라 업무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다른 국에서는 숫자 다음에 마침표를 찍는 탓에 외부서류는 사실상 재작성을 해야해 "(서류)점 빼다가 하루가 간다"는 말이 부서 내 유행어가 됐다고 한다.

◇**시의회와 언론마저 속여**=C국장(3급)은 최근 의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누락을 은밀히 지시했다.

자신이 잘 모르는 업무를 시의원들이 질문하면 귀찮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일부 직원이 의회보고에서 누락되면 업무 추진도 어렵다고 건의하자, "그러면 그 업무는 하지 말라"고 말해 내부적으로 논란이 됐다.

D국장은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산하기관 외부인사 채용과 관련한 내용을 거짓으로 답변해 입살에 올랐다.

D국장은 논란이 된 인물을 이미 선임한 뒤 위촉장까지 수여해 놓고도, 출입기자들에겐 "현재 채용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거짓내용을 말한 것이다.

◇**성희롱성 발언 구설수**=지난달 대규모의 승진·전보 이후 각 실·국·과별로 회식이 잦아지면서 일부 간부의 여직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성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국장은 직장 내 회식은 엄연히 공적인 자리임에도 여직원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직원들 사이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에 배정찬씨
평생교육진흥원장 김농채씨 선임

배정찬 원장

김농채 원장

(재)광주테크노파크 제7대 원장에는 배정찬(61)씨가,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에는 김농채(58)씨가 각각 선임됐다.

광주시는 기관별 후보추천위원회와 전형위원회 등을 통해 후보를 압축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에 선출된 배정찬씨는 광주제일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 위스콘신 메디슨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연구본부장,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연구본부 수석연구원을 역임했다.

평생교육진흥원장에 선임된 김농채씨는 광주YMCA관장, 광주전남비전21 사무국장, 서남해안포럼 사무처장, 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상임이사, 조선대·서정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광주시는 "배씨는 산자부와의 조율능력 및 산업정책에 대한 비전, 광산업과 자동차 등 미래먹거리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추진능력이 고려됐으며, 김씨는 다양한 경험과 이력이 평생교육진흥원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리더십, 경영혁신에 부합해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숲 속의 전남 만들기' 민간 공모
황룡면 장산리 마을 등 39곳 선정

전남도는 민선 6기 브랜드시책인 '숲 속의 전남' 만들기 2015년 민간 공모를 통해 황룡면 장산리 마을 숲 조성 등 39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16억원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지는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등이 신청한 사업 희망지 중 시·군 실무협의회의 1차 심사를 통과한 66개소에 대해 '숲 속의 전남 협의회'의 기술·교육 분과위원회 위원 5명이 심사해 선정됐다.

심사는 숲 조성을 위한 민간단체의 실행 의지와 사업 효과, 대상지 적합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접근성·개방성·이용성·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시·군 안배와 숲 조성 후 효과 등을 고려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순천의 강청수변 공원숲 조성사업은 순천시 서면 이장협의회 등 7개 단체 347명이 현재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운동시설과 황량한 개활지 7000㎡를 2억원을 지원받아 숲으로 만들 계획이다.

보성 벌교 장양어촌계 287명은 벌교읍 장양 어촌체험에 바다와 산림이 어우러진 자연경관을 조성하겠다며 2만2685㎡에 나무 그늘과 등의자 등 쉼터를 갖추겠다고 신청했다.

공모 심사를 맡은 곽행구 숲 속의 전남 협의회 기획운영분과 위원장은 "숲 속의 전남 만들기에 대한 지역 주민과 단체의 열정에 놀라웠다"며 "공모를 신청한 대상지 모두에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없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외국인 전남 땅 2조2000억 상당 소유

중국인 제주도 투자 급증
나라 전체로는 3.9% 늘어

지난해 외국인이 전남에 소유한 토지는 전남 전체의 0.303%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전남도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3994필지 3731만3707㎡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2002억58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2013년 말 4204필지 3749만3614㎡(공시지가 2조2778억4900만원)에서 17만9907㎡가 감소한 수치다.

합작법인이 소유한 면적(2284만7715㎡)이 61.2%로 절반을 넘어섰으며, 교포(1269만4515㎡), 순수외국인법인(89만5727㎡), 순수 외국인(79만1443㎡)이 그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502만1597㎡로 가장 많았으며, 영국·프랑스·독일(156만9974㎡), 일본(150만830㎡) 등의 순이었다.

취득용도별로 살펴보면 공장용지가 1059필지 2093만969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2억3474만㎡(234.74㎢)로 전체 국토 면적(10만266㎢)의 0.2%를 차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81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33조607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1895만㎡의 땅을 사들이고 10천14만㎡를 처분해 전체적으로는 881만㎡(3.9%)가 증가했다.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3배, 금액으로는 1조1654억원(3.6%)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에는 특히 중국인들의 투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제주신화역사공원(232만㎡), 오라이동 레저용지(70만㎡), 상명대 제주연수원(32만㎡) 등 지난해 외국인이 사들인 제주 땅 가운데 85%(523만5000㎡)를 중국인이 취득했다. 지난해 중국인의 제주 토지 보유 면적은 전년(315만㎡)보다 165%나 늘어난 것이다.

/윤현석기자chadol@·연합뉴스

오늘 순천서 올 첫 나무심기

산림청은 올들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나무심기 행사를 13일 순천 국립낙안민속자연휴양림에서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하 산림청 차장을 비롯해 이정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라남도와 순천시, 산림조합 관계자, 지역주민, 순천대학교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해 난대 상록활엽수인 동백, 돈나무, 굴거리, 은목서 등 2천그루를 심는다.

이번 나무심기 행사는 예년보다 5일가량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순천은 봄철 해빙이 빨라 일찍 나무 심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김용하 차장은 "나무심기는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4월 말까지 봄철 나무심기 기간에 2만2천ha에 5200만그루를 심게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